

# SK이노, 2050년까지 탄소 1억톤 줄인다... '넷제로' 성큼

제2차 넷제로 특별 보고서 발간  
감축 목표 강화... 방법론 구체화  
탄소 감축 기여 효과 별도 측정

SK이노베이션이 온실가스 넷제로 달성에서 나아가 글로벌 탄소 감축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비욘드 넷제로(Beyond Net Zero)'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31일 SK이노베이션은 Scope 3에 대한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와 글로벌 탄소 감축 기여 의지를 담은 '2022년 넷제로 특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특별 보고서의 핵심은 '비욘드 넷제로' 전략으로 ▲친환경 바이오 항공유 ▲전기차 배터리 ▲플라스틱 재활용 ▲배터리 금속 회수 및 재사용 등 다양한 친환경·저탄소 사업 확장을 통해 2050년까지 약 1억톤 이상의 탄소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2040년 이후부터는 SK이노베이션의 Scope 1, 2, 3 감축 노력과 글로벌 탄소 감축 기여 효과가 결합된 총 긍정효과가 온실가스 잔여 배출량을 초과하는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탄소 집약도란 단위 고정자산 당 발생하는 Scope 3 배출량을 의미한다.



SK이노베이션의 '2022년 넷제로 특별 보고서' 표지

/SK이노베이션

다는 것이 골자다. 탄소 집약도란 단위 고정자산 당 발생하는 Scope 3 배출량을 의미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작년 국내 최초 넷제로 특별 보고서를 통해 Scope 1, 2, 3 온실가스 넷제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며 "넷제로에 한 걸음 더(One Step Closer to Net Zero)"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이번 보고서는 지난 2년 간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더 높은 수준의 넷제로 목표를 지속 추구하겠다는 의

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 계열 밸류체인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더해 글로벌 탄소 감축 기여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종합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은 SK이노베이션이 국내 기업 중 최초"라며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매우 선도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은 '탄소에서 그린으로(Carbon to Green)' 비즈니스 모델·포트폴리오 혁신을

통해 사업장 내 배출되는 온실가스(Scope 1, 2) 뿐만 아니라, 원료 생산 및 수송부터 판매, 소비,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Scope 3)를 감축하는 '넷제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했다.

'넷제로 포트폴리오' 전략은 배터리·소재 사업 중심의 자산 증가와 계열 내 모든 사업회사의 Scope 3 감축을 추진함으로써 2050년까지 SK이노베이션 계열 통합 Scope 3 '탄소 집약도(Financial Intensity)'를 기준연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감축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작년 1차 넷제로 특별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2050년 75% 감축 목표 대비 한층 더 강화된 목표이며, 감축 방법론 또한 구체화됐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제품·서비스 확산을 통해 '글로벌 탄소 감축 기여 효과(Avoided Emissions)'를 별도로 측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탄소 감축 기여 효과는 기업이 기존 제품·서비스 대신 친환경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여 얻어지는

상대적인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항공유의 경우, 기존 원유를 정제해서 생산된 항공유 대비, 폐식용유(Used Cooking Oil, UCO) 등 바이오 원료로 생산한 친환경 항공유 사용 시 더 적은 수준의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Scope 1, 2 감축 역시 작년에 수립하고 공표한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9년 배출량 대비 약 15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것으로, SK이노베이션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저감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권영수 SK이노베이션 ESG추진담당은 "이번 넷제로 특별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비욘드 넷제로' 전략은 과학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라는 주요 이해관계자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넷제로 달성을 위한 SK이노베이션의 여정을 외부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올해도 상생... 삼성, 협력사에 2조 조기지급

삼성D 등 11개 관계사 참여  
작년 8000억 보다 3배 증가

삼성이 올해 추석 명절에도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자'는 상생 비전을 실천한다.

삼성은 추석 연휴 이전에 물품 대금을 최대 열흘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에스원 등 11개 관계사가 참여한다.

올해 물품 대금 규모는 총 2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만 1조 4000억 원,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급했던 8000억 원보다 3배 가까운 증가다. 삼성

은 조기 대금 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부담하면서 상생 의지를 분명히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18개 전 관계사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맞이 온라인 장터'를 열었다. ▲전국의 농수산물 ▲자매마을 특산물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생산 상품 등의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에는 각 회사별 사내 게시판 또는 행정안전부, 지자체단체, 우체국, 농협 등이 관리하는 쇼핑몰을 통해 운영한다. 삼성 계열사들의 자매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특산물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업체 50여 곳이 생산한 제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삼성은 그동안 매해 설과 추석 명절마다 각 사업장에서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를 열어 농산물 판매를 지원해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추석부터는 온라인 장터로 전환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는 각 30억원 상당 판매 성과를 거뒀다.

그 밖에도 삼성은 상생을 위해 2011년부터 물품 대금 지급 주기를 월 2회에서 3~4회로 늘리고, 2010년부터 상생 및 물대 펀드를 조성해 처음 2조 3000억원에서 이제 3조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협력사 인센티브도 지급 규모를 8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늘렸다.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지급하는 '납품단가 연동 제도'를 선제 도입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이어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



삼성은 올해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상생 노력을 이어간다. 사진은 추석 맞이 온라인 장터를 이용하는 임직원 모습.

/삼성

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생 비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평소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10월故이건희 회장 1주기에는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이웃과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juk@

## 삼성전자, '이음5G' 공급으로 디지털 혁신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참여

삼성전자 이음5G 솔루션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에 참여해 에너지·안전·수자원관리·의료·의료교육 등 5개 부문에 '이음5G 전용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이음 5G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너지), 한국산업단지공단(안전),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관리) 등 공공분야와 협력해 공공의 이익과 안전, 보안

이 강화된 5G 융합 서비스를, 이대목동병원(의료), 삼성서울병원(의료교육) 등 민간 분야와 협력해 이음5G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첨단 의료·통신 기술이 결합된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컨소시엄에 이음5G 솔루션을 제공하고, 컨소시엄은 이음 5G 구축/운영을 맡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이음5G 전용 솔루션'인 컴팩트 코어(Compact Core), 컴팩트 매크로(Compact Macro), 특화망 전용 주파수인 4.7GHz와 28GHz를 지원하는 라디오 기지국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B2B 그룹장용 상무는 "금번 국내 공공·민간기관과의 협력은 삼성전자의 5G 기술력과



삼성전자 이음 5G 장비

/삼성전자

특화망 서비스 상용 노하우가 결합된 성과"라며, "삼성전자는 5G 리더십과 국내외 기업간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5월 국내 이음 5G 상용 확대와 공공 이익 증진을 위해 국내 최초로 4.7GHz와 28GHz를 모두 지원하는 이음5G 전용 장비를 출시하고, 네이버 신사옥에 이를 적용한 국내 최초 이음5G 상용을 지원한 바 있다.

/김재용 기자

## 화면 구부렸다 펴는 'LG 올레드TV' 나온다

전세계 순차 출시 예정

화면을 구부렸다 펼 수 있는 올레드 TV가 드디어 시장에 나온다. 게임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 형태를 고를 수 있는 제품으로, LG가 오랜 개발 끝에 상용화에 성공했다.

LG전자는 다음달 2일 열리는 IFA 2022에 벤더블 게이밍 올레드 TV, '플렉스'를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중으로 전세계에 순차 출시 예정이다.

플렉스는 화면 곡률을 20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평범한 콘텐츠를 볼 때는 평면 상태로 사용하다가, FPS 게임 등 필요할 때는 최대 곡률 90R까지 조절할 수 있다. '유연한', '휠 수

있는' 뜻을 가진 영단어 '플렉시블'과 '뽐내고 자랑한다'는 의미의 '플렉스'에 착안해 명명됐다. 화면을 위 아래로 최대 15도까지 기울이는 틸트와 최대 14cm 화면 높이가 조절 등 인체공학 설계도 포함했다.

플렉스는 LG전자의 올레드 기술력과 함께, '고객 경험' 확대 의지로 기획됐다. 게임을 보고 하는 즐거움 모두를 만족시키는 데 집중한 것. 이에 따라 플렉스는 UI/UX와 주변 기기 연결 편의성 등 다양한 최적화 기능을 구현했다. 게이밍 모드에서는 게임 장르에 따라 최적의 화질과 음향을 설정할 수 있게 했고, 화면 크기도 42형이 아닌 32형과 27형으로 제한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